

# 지역대학 연구역량 키우고 혁신기업 양성 나서야

## 전남 과학기술역량 실태와 업그레이드 대책

전남도가 '한전공대 설립'에 전력을 기울이는 배경에는 전남이 갖추지 못한 '세계적인 인재'에 대한 갈망이 자리잡고 있다.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 혁신 및 발전을 이끌어 가야 할 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그 돌파구를 한전공대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한전공대가 들어서면 한국전력을 정점으로 한 '대학-연구기관-기업-민간기업'으로 이어지는 에너지산업의 틀이 완전히 발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단순히 에너지산업만이 아니라 관광, 바이오메디컬, 드론 등 미래 산업, 화학·제철·농수축 등 기존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남, 2018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 9위로 강중-10위권 내 진입=전남의 2018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R-COSTII) 점수는 7690점으로, 2017년 11위에서 9위로 2단계 상승했다. 1위인 경기(1만6797점), 2위 서울(1만6255점), 3위 대전(1만5494점)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점수지만, 지난 2014년 4655점에서는 대폭 상승한 수치다. 광주는 9041점이었다.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은 ▲자원(인적 자원, 조직, 지식 자원) ▲활동(연구개발 투자, 창업·사업화 활동) ▲네트워크(산·학·연 협력, 기업 간·정부 간 협력, 국제협력) ▲환경(지원 제도, 인프라, 교육·문

공공기관 대거 입주로 환경 개선 연구활동 미흡, 성과 창출 못해 지역민 한전공대 설립에 큰 기대

▲성과(경제적 성과, 지식 창출) 등 5개 주요 지표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전남은 네트워크(2396점, 6위)와 환경(3210점, 4위)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자원(157점, 15위), 활동(632점, 13위), 성과(1295점, 12위)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전남의 5개 주요 지표 비율에서 네트워크와 환경이 각각 31.2%, 41.7% 등 72.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원은 2.0%, 활동은 8.2%, 성과는 16.8%에 불과했다.

빛가람혁신도시에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관련 기업 등이 대거 입주하면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자원이나 활동이 극히 미흡하고, 그에 따라 성과 역시 제대로 창출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연구원 수, 국내 30위권 이내 대학 수 등 자원 크게 미흡=전남은 자원 부문에서 157점으로, 제주(111점)에만 앞서는 15위다. 특히 총연구원 수, 인구 만명당 연구원 수 등 인적 자원에서는 제주(111점)보다도 뒤진 54점으로 16위로 조사됐다. 연

구원 수는 4493명, 인구 만명당 연구원 수는 25.0명에 불과했다. 광주는 7722명의 연구원이 상주하고 있었다.

조직 역시 15위였다. 세부항목 별로 보면 특허·연구개발 수행 조직 수 13위, 국내 특허등록 기관 수 12위, 국내 랭킹 30위 이내 대학 수 비중 15위(0%), 국내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 수 15위(12개) 등에 그쳤다. 최근 5년간 과학기술논문 수 역시 1933편에 불과해 지식 자원에서도 전남은 15위에 자리했다.

이렇듯 네트워크와 환경을 갖추고도 자원과 활동이 미약하면서 성과 창출도 제대로 되지 못했다.

◇우수 대학·연구기관 설립 및 유치, 혁신기업 양성 등이 과제=전남은 1인당 GRDP가 전체 평균보다 높지만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는 평균보다 낮은 지역에 해당한다. 전남의 2016년 GRDP는 3810만원으로 울산(6178만원), 충남(4970만원)에 이어 3위다. 하지만 현재 1인당 소득은 높으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평균 대비 낮아 향후 성장의 둔화가 우려되는 지역군이라는 것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분석이다.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한전공대 설립을 계기로 지역 대학의 연구역량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지역기업이 혁신을 통해 연구개발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현석 기자 chad01@kwangju.co.kr



환경의 날 대통령과 함께 '활짝'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 아이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5월단체, 청와대·美대사관에 5·18 미국문서 확보 촉구

“원본 확보가 진상규명 열쇠”

5월 단체와 5·18기념재단이 청와대와 주한 미국대사관에 5·18 관련 미국 기밀문서 원본 확보를 촉구하는 공문을 5일 발송했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5·18 관련 미국 정부 기록을 통해 새로운 진실을 밝힐 수 있으며, 이는 진상규명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며 “5·18 관련 기밀문서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 39년 동안 감춰진 진상을 밝히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5월 단체들은 미국 국립문서기

록관리청 소장 기록물 열람을 요구하는 등 미국에 남겨진 5·18 관련 자료 확보에 힘써 왔다. 하지만 민간·연구 단체로서 미국 정부의 공식 기밀문서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에 정보공개청구나 기증을 통해 확보한 미국 정부의 자료는 이름이나 장소 등 민감한 사항은 삭제돼 5·18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5·18 연구자들은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 미국에 공식적으로 5·18 기밀문서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3월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5·18 관련 미국 측 기밀자료 해제 및 자료 요청을 공식 의제로 다루도록 건

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사안의 민감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차분하고 면밀하게 관련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5월 단체들은 “아르헨티나가 군부독재 정권의 탄압만행과 관련한 미국 자료를 ‘법정부 차원의 기밀 해제 프로젝트’를 추진해 이란 받은 것처럼 우리 정부 또한 미국 기밀문서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면서 “39년간 감춰진 5·18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청와대와 주한 미국대사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여야4당, ‘5·18 망언 3인방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5일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5·18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숭고한 민주화운동이며,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는데도 이들 한국당의 의원은 5·18민

주화운동을 ‘폭동’, 민주 유공자를 ‘괴물 집단’이라며 폄훼하고, 5·18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며 투쟁을 선동하는 등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속의원의 망언을 엄중하게 문제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자유한국당도 의무를 저버린 지 오래”라며 “한국당은 망언 의원 3인의 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또 5·18 역사 왜곡 처벌법과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출범에 진정성을 가지고 협력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과 무소속 의원 총 157명이 참여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애초 151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6명이 추가로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골프를 회화 대상으로 끌어들이던 ‘제주도 화가’



김은영의 ‘그림 생각’

(270) 골프

미국 LPGA 투어 US여자 오픈에서 이 지역 출신 이정은 선수가 우승하면서 뒤이은 화려한 미담이 화제다. 우승도 이 슈이지만 뭐니 뭐니 해도 ‘스토리’가 있는 투어가 감동을 배가시키는 것 같다.

IMF 외환위기로 온 국민이 실의에 빠져 있을 때 박세리 선수의 맨발 투혼이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듯이 답답한 뉴스 가득한 요즘을 박세리 키즈들의 도전이 모처럼 더 대담하고 반갑게 다가온다.

과분해서이겠지만 회화 작품에 골프가 소재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제주도 화가’라 불리는 이일중 작가(1945~ )의

작품들에서부터일 것이다. 이일중 작가의 ‘일출봉’ (2014년 작)은 제주도 성산 일출봉 일대의 풍경을 정밀 ‘그림처럼’ 아름답고 평화롭게 묘사한 작품이다. 성산 일출봉 너머 제주의 푸른 바다에는 연락선이 갈매기를 이끌며 어디론가 떠나고 있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근 필드에서 동호인들이 운동을 즐기고 있다. 두께가 2cm넘는 장지에 아크릴과 같은 서양 재료로 채색을 한 화면이 어서 거칠고 질긴 물성이 투박한 듯 서정적이다.

작가는 추계예술대 교수로 재직 중 안 식년을 맞아 제주에 머무르다가 교수직을 그만두고 제주살이를 시작한 지 30여년째. 제주의 한 골프장의 의뢰로 대형 작품을 작업하게 된 것을 계기로 골프를 회화의 대상으로 끌어들이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대표적 민속놀이인 씨름이어서 김홍도의 풍속화가 그려졌듯이 어느덧 우리 일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골프 장면을 제주의 풍경화와 함께 그림



이일중 작 ‘일출봉’.

으로서 현대적 풍속화가 된 것이다.

2013년 서귀포에 ‘일중 미술관’을 연 작가는 “제주에 정착하면서 ‘제주생활의 중도(中道)와 연기(緣起)’를 주제로 행복과 불행, 자유와 구속, 사랑과 고통, 의로움 등을 뜻과 새, 물고기, TV, 자동차, 동백꽃, 노루, 골프 등 주변의 소재들로 표현하며 오늘날 그림 속에 빠지고 싶다”는 바람을 밝힌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연구관·미술사박사>

가까운 무안에서 출발해요~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쭉~우~우~

## 믿고가는 조이투어에서 여름휴가! 떠나세요~!♥

### 무안 ↔ 후쿠오카 큐슈 최대 도시

매주 월,수,금,일 출발

◆ [2박3일] 399,000원~ / [3박4일] 699,000원~

### 무안 ↔ 오이타 살랑~살랑 봄바람 타고

매주 월,수,금 출발(최소인원 7명 이상 출발보장)

- ◆ [6/12,19일 출발] 초특가 뱃부&유후인 3일 349,000원~
- ◆ [월/수 출발] 오이타 뱃부&유후인 3일 399,000원~
- ◆ [금 출발] 뱃부&유후인&야나가와 뱃놀이 4일 699,000원~

### 무안 ↔ 동경 매일출발 일본의 수도 도쿄를 무안에서!

★최저모객인원 7명 출발보장★

- ◆ [정통] 동경&하코네 3일(디즈니랜드선택관광) 799,000원~
- ◆ [정통] 동경&하코네 4일(디즈니랜드선택관광) 949,000원~

### 특가 & 집중모객

- ◆ 오이타 초특가 6/12,19일 출발 349,000원!!
- ◆ 다낭(베트남항공) 6월 출발 399,000원 / 7월 출발 499,000원
- ◆ 블라디보스톡(제주항공) 6/22,29 출발 749,000원!!
- ◆ 마카오(제주항공) 6월 출발 399,000원 / 마카오&홍콩 449,000원

### 무안 ↔ 몽골 가격인하, 상품질문

★6월 15일 ~ 8월 28일 까지(매주 수,토 출발)★

- ◆ [수요일] 4일 1,098,000원~ / [토요일] 5일 1,148,000원~
- ◆ [항공+호텔] 4일 649,000원~ / 5일 699,000원~
- ◆ [항공] 무안→울란바토르 편도 25만원 / 왕복 50만원 \*몽골인에만함
- ◆ [항공특가] 6/15 출발 울란바토르→무안 편도 18만원

### 무안 ↔ 대만 정기편(제주항공)

매주 월,화,수,목,금,토,일 매일출발 3박4일

- ◆ [타이베이일주] 스펀,단수이,야류,지우펀 579,000원~
- ◆ [화련] 화련,태로각,지우펀,야류 629,000원~

### 무안 ↔ 나트랑(젯스타항공)

7월 28일부터 총 6항 출발

[목요일출발] 4일 / [일요일출발] 5일 699,000원~

### 무안 ↔ 달랏(비엠텐항공)

7월 24일 ~ 3월 28일 까지(매주 수,토 출발)

[수요일출발] 4일 / [토요일출발] 5일 749,000원~

### 무안 ↔ 다낭(베트남항공&제주항공)

[베트남항공] 매주 화,금출발 / [제주항공] 매일 출발

[다낭&호이안&후에] 399,000원~

### 무안 ↔ 블라디보스톡(제주항공)

◆ [월,수,토,일요일출발] 블라디+우수리스크 4일/5일 779,000원~

◆ [월,수,금요일출발] 블라디+연길 5일/6일 1,149,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주다2003-1호  
 \*여행조건: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보증금 가입(여행상품: 1억원, 국내상품 50만원), 관광진흥법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열버스 / 전 지역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원 영인보증보험 가입 / 여행금지 기업 업체 \*예약시 계약서(해상)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업(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배관광, 각종 배저금 별도) \*상기 출발일: 상황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JOY TOUR